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운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
복음이 필요한 그들과 함께 오십시오!

주제 :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세기 15:1)

일시 : 이번 주 금요일(22일),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 (요한인양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16)

구한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귀한 믿음인 것처럼 간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 (롬 10:3~4)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붙들고 살던 믿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롬 3:27~28)

영적 존재인 인간에 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죄인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요 3:18) 또한 이토록 무섭고 떨리는 우리의 형편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요 3:5~6)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는 우리의 본성이 죄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롬 3:9~12) 복음은 이러한 죄의 문제 그 자체인 인간을 향해 외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 그래서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다루려 할 때 죄의 근본을 잘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는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롬 3:23~26)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롬 5:8, 10)

세상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아셨다. (마 3:17, 17:5)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마 15:8~9) 이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사람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도로 부르고 계신다. (요 6:28~29)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배후에 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가장 잘 알려
진 말씀 중 하나로, 복
음을 집약적으로 묘사
해 준다. 복음은 하나
님이 시작하셨고, 또
복음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응답하기를 요

청난 것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 사랑은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선행이 아니라 당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이다. (요 3:14~15) 이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준다.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랑 사도 바울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재를 설명하셨다. (롬 5:6~8)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랑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내려진 것이다.

찾지 않았던 사랑 경건치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도 않는다. (요일 4:10)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희생이다. 예수님은 속죄의 희생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 (막 27:46; 고후 5:21)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예언을 이룩했다. (사 53:4~5; 수 13:7) 예수님은 자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갈보리 산 위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마 26:31)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후에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상상을 초월한 사랑 참으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방대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끝이 없이 무한하다. 복음은 죄 안에 죽어 있는 우리, 엄청난 죄악의 권세 안에 힘없이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제시하며 약속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은 것 같지 않는데, 내가 왜 약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도 없고 찾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요일 3:1) 아멘.

*제1차 청지기훈련 좌석배치 및 2008년 전반기 장학생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청지기훈련 관계로 이번 주간 화요일 기도원집회 및 금요일 구역예배는 없으니
청지기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BY THEIR FRUITS

⁽²⁾Now when John, while imprisoned, heard of the works of Christ, he sent word by his disciples ⁽³⁾and said to Him, "Are You the Expected One, or shall we look for someone else?" ⁽⁴⁾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Go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ear and see: ⁽⁵⁾the BLIND RECEIVE SIGHT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and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⁶⁾"And blessed is he who does not take offense at Me."(Matthew 11:2~6)

Jesus Christ and John the Baptist had a very, very special relationship. Before John was born, an angel of the Lord told his father that he would go as a "forerunner" before Jesus,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Lk. 1:17) More than seven hundred (700) years before that Isaiah prophesized that John's ministry would prepare the way for Christ's ministry(Is. 40:3~5), which Luke also recalled, "And he came into all the district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Every ravine wi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will be brought low; the crooked will become straight, and the rough roads smooth; and all flesh will see the salvation of God'"(Lk. 3:3~6). Even Matthew pointed out John's important work, "For this is the one referred to by Isaiah the prophet when he sai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Mt. 3:3) Heaven appointed John to witness, prove, and explain to the world that Jesus Christ is the Messiah.

John, himself, told the world, "I am a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as Isaiah the prophet said."(Jn. 1:23) and as Jesus approached him in Bethany, he proclaimed to the crowd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As a servant of God and true witness, he should have had no doubts about Jesus Christ, but after he was jailed for reprimanding Herod he started to question things. He sent his disciples to Jesus to ask, "Are You the Expected One, or shall we look for someone else?"(v. 3) John knew Jesus, the Holy Spirit had come upon him while he was yet in his mother's womb.(Lk. 1:15) He was the one who prepared His way, but he dreamed his own version of the Kingdom of God. When adversity and persecution hit him, like us, his faith wavered.

In answering John's question, Jesus also answers ours. He told John's disciples, "Go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ear and see:"(v. 4) Jesus revealed an important principle. He had warned those who listened to Him,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Mt. 7:15) He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a false and true prophet,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Grapes are not gathered from thorn bushes nor figs from thistles, are they? "So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bad tree bears bad fruit. "A good tree cannot produce bad fruit, nor can a bad tree produce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 the fire. "So then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Mt. 7:16~20) When you read the Bible, you need trust in God's word and not make another meaning. After Jesus told

Peter that he was going to Jerusalem to be crucified and raised in three days, Peter rebuked Him and said, "God forbid it,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Mt. 16:22) Like John, he was making his own meaning of the Bible. Both of them wanted the Messiah to act like their version of the Bible, not God's. Today's Christians need to read and trust God's word, nothing else.

What are the fruits of Jesus? Today's Bible passage says, "the blind receive sight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v. 5) These are real fruits. God sent His Son to this earth,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be blessed. In the Old Testament, Isaiah prophesized about the coming Messiah, "Then the eyes of the blind wi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will be unstopped. Then the lame wi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will shout for joy."(Is. 35:5~6) Jesus not only fulfilled this Old Testament prophecy about Himself, but every single one! John read the Scriptures, he knew the truth, but his expectations were his own, not God's. His imprisonment did not make sense to him because he had his own idea of how things should play out, and this was not it. Jesus was a stumbling block to him. If you do not believe the Word of God, then you imagine your own philosophy. If you accept the Bible, then everything becomes clear. Your failure or success in life depends directly on Jesus.

Many of today's big church pastors do not believe exactly in what Jesus said. They make up their own glorious meanings to suit their own viewpoints. What they say sounds good and gathers a great following, but it is very different from God's meaning. Those pastors who really preach Jesus Christ are not famous in this world because much of what they say contradicts the world's view. Few want to listen to them because it is hard to accept the whole Bible. The high priests believed that after Jesus was crucified that He would rise again in three days. When the soldiers reported His missing body, they paid the soldiers money to give a false report. Jesus was a stumbling block to them. If you do not want Him to be a stumbling block to you, then do not confuse God's word. Please accept the Bible purely,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clearly, and you will sincerely receive God's mercy and grace.

Today is the 3rd Sunday of Lent. Focus your mind on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Believe in God's word wholeheartedly. Jesus concluded, "And blessed is he who does not take offense at Me."(v. 6) Can you in full faith acknowledge and accept His fruit as evidence of His messiahship? John knew Jesus, but he got mixed up because he stopped looking at the fruits. Jesus reminded him about what to look for, so that he could be reassured. My dear friend, look at the fruits of Jesus and know that He is your Savior. When trouble comes, and it will, all He asks is that you just believe. Amen. 卐

다음 주일 설교

그들의 열매로

-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6)



김성광 목사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주의 천사가 그의 아버지를 찾아와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눅 1:17)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이미 7백 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사 40:3~5) 누가도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눅 3:3~6) 마태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마 3:3)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전하고, 전하고, 설명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세례 요한 스스로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요 1:23)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에서 그에게 나아오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요 진심된 증인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급의 의심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हे를 책망한 일로 감옥에 갇힌 후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3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눅 1:15)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은 혼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4절) 예수님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가서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도,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히므로 던져지느니라"(마 7:16~19)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또 다른 의미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삼 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했다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 역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메시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5절) 이것이 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사 35:5~6) 예수님은 구약의 이 예언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읽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유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코 이런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결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경마저도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믿으십시오. 이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 맛있는 의미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들의 말은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뜻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이 세상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과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삼 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했을 때 돈을 주며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말될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성경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6절) 예수님의 열매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상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를 보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2. 13.)

하늘나라의 회원

(마태복음 5:3~10)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마 1:1~17) 최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인간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30년간 평범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알리는 위임식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마 3:16) 동시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하늘의 위임식 후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였고, 금식 후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다.(마 4:1~11) 이후에 예수님은 영혼구원을 위한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사람이 더욱 구원화되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산상수훈(마 5~7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는인 팔복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한 것이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3,10절이다. 이 구절에서 유의해서 볼 구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이다.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에 대한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 단락은 마태복음 5장 4~9절 즉, 3절과 10절 사이의 말씀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린다고 좋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회원은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회원은 천국을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10)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욕심은 없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회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죄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지 않은가? 자기를 부린다고 믿는 하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말라 행동에 분노하지 않은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행복과 영광을 얻으려

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은가? 하늘나라의 회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령의 수제자로써 말복과 기복을 가장 많이 체험한 베드로의 배신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회원으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회원은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예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4~9)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회원이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라! 복을 위해 얼마나 자주 애뵈했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불부림치면서 애뵈해할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몇 번인가?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창 19:4~8)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애뵈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연료와 공로를 자랑하며 영광과 존경을 원하지 않았는가? “예뵈하라. 온유하라.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 긍휼히 여기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화평케 하라.” 하늘나라의 회원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늘나라의 회원이 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갈매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의 생명의수를 간행해야 한다. 나에게 크나큰 손해를 주었음직라도 용서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 가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회원이다.(고후 5:17) 그런데 약한 영은 우리를 미혹한다.(골 6:12) “적당히 하라. 분위가요 맞추라.”고 속삭인다. 이같은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팔복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벧전 2:21,24)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골 4:21~24)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다. 하늘의 복이다. 하늘나라 회원이 되는 은총이다. 하늘나라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열정은 필요 없다. 오직 말씀, 회개, 십자가만이 필요하다. 매순간 의의 열매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깨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찬 289장) 우리는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뜻 대신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변명과 핑계를 멈추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자기를 부린하! 자기 십자가를 지! 모든 욕심을 버린 가난한 심령, 애뵈함, 온유함, 말씀의 갈급함, 긍휼, 청결, 화평한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늘나라의 회원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 매주 월요일제기도시간(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3:7~12)

예수님은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병을 고쳐 주셨다.(마 1:41~42) 그러나 이 일은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종교지도자들은 죄 사함의 권세(마 2:7), 죄인관화의 사사(마 2:16), 금식(마 2:18)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계속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셔 내린 결론이 메시야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 헤매를 찾았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마 3:6) 무엇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념과 율법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악한 종교지도자들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전통을 버려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마 3:7)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왔다. 또한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마 3:8)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인들의 열정이 있었다. 초대 교회에서도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행 21:3~4, 27:3)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귀신

들인 자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마 1:24) 거러사의 광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성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마 5:7) 이때 거러사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메시야가 자신들의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떠나시도록 요청하였다.(마 5:17) 메시야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합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까지 말하였다. 얼마나 하고 완악한 모습인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 대신에 세상적인 행동을 구하고 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과 윤리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한 메시야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며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메시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마 8:27~28) 무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과 동일한 모습을 이루고 만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세상의 축복을 구하게 된다. 십자가의 길보다 자녀의 형통, 건강, 물질들을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임을 기억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자.(마 1:11, 15:39)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자. 우리의 대답은 십자가이다. “주여, 십자가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결혼기념일보다 청지기훈련!

나에게 2월은 특별한 달이다. 결혼기념일과 약혼기념일이 다 2월이기 때문이다. 퇴계로의 구상전에서 결혼식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사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인양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 지난날 쾰만했던 삶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에 참 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믿게 되었다. 이제야 저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왜 진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나에게도 선교와 봉사, 삶의 삶을 살고 싶은 꿈을 주셨다. 이것은 내 외재대로 세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이다. 이처럼 연약한 죄인을 다듬어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다. 특히 이러한 감사의 제복들을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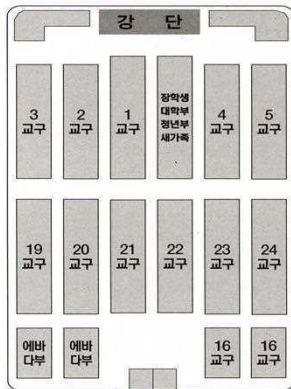
약혼과 결혼기념일 중 어느 날도 스스로 기억할 일이 거의 없는 남편이기에 가대는 안했지만 2월 달력을 보여주며 "중요한 날이 있는데……", 했더니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남편은 대답했다. "22일이 1차 청지기훈련이잖아!", "그저 말고 또 있지 않나?"고 나는 되물었다. 그랬더니 "글쎄!"라는 대답뿐이었다. 내가 참다 못해 큰소리로 "결혼기념일!"하고 외쳤지만 그 순간 무언가 모를 것까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릴지언정 말씀의 잔치인 청지기훈련을 기억하고 있던 남편의 믿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달 전부터 청지기훈련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기념일만 데려다 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잔치를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물론 기념일보다 더 특별한 청지기훈련을 기억하게 한 남편에게도 감사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Yes!"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기도한다. 2월 22일, '교회와 방패와 십구' (창 15:1)의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사님, 말씀과 찬양의 은혜 가운데 거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온 교회가 같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기념일이 아닌 청지기훈련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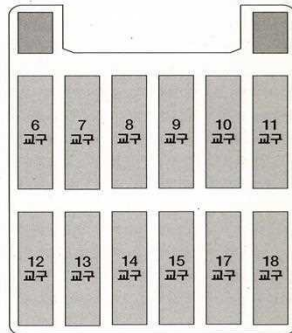
문종숙(권사, 16교구)

청지기훈련 좌석안내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 출석표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모든 부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탁자부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탁자부설(부모와 4세 이하), 영아부설(5세~7세), 배다나들(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성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통로 주위 차량은 먼저 출차(出車)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0	임계	25	외산부	김나훈(21)	261	황선정	8	중동3부	백수희(12)	282	전태대	24	장년1부	이만숙(24)
241	송민선	6	장년1부	유금순(24)	262	서유애	6	장년1부	박성원(16)	283	황선정	2	장년1부	조종훈(23)
242	한재희	6	고동부	유금순(24)	263	임재은	14	장년1부	박성원(16)	284	장지호	17	장년1부	김정실(19)
243	한선희	6	중동3부	유금순(24)	264	최영숙	14	장년1부	박성원(16)	285	김지희	10	장년2부	이영숙(17)
244	한광희	6	초동부	유금순(24)	265	김영희	14	소년부	박성원(16)	286	이영희	21	장년1부	장혜숙(17)
245	황진영	15	중동부	서영선(21)	266	황진영	14	유년부	박성원(16)	287	김현숙	8	중동3부	김진숙(16)
246	최민선	22	장년1부	김정아(21)	267	이국희	18	중동3부	김정민(18)	288	이문영	13	장년1부	장년1부
247	박지영	22	장년1부	황두원(24)	268	권숙진	9	장년3부	도수자(9)	289	이도기	25	외산부	방소애(24)
248	남궁훈희	1	장년1부	김영조(23)	269	박서훈	17	중동3부	남영훈(17)	290	김영훈	25	사망부	김수진(25)
249	박지연	1	장년1부	김영조(23)	270	이민정	2	장년2부	이민정(1)	291	신복원	4	고동부	박복순(2)
250	홍지민	9	장년3부	최정아(13)	271	박지훈	11	고동부	김정민(16)	292	이영규	15	장년2부	정문지(15)
251	박지민	17	장년1부	박정민(21)	272	최종원	3	장년2부	박복순(2)	293	김기영	4	장년1부	장년1부
252	최근호	25	에바다부	김정민(21)	273	박지민	2	외산부	이은정(22)	294	김태희나	25	외산부	이은정(2)
253	김수호	9	대학부	이국희(2)	274	김민희	25	사망부	박복순(2)	295	김태희나	25	외산부	이은정(2)
254	최진영	22	장년3부	최정아(17)	275	이국희	8	장년2부	황선정(8)	296	황선정	19	장년2부	유승원(19)
255	최진영	10	장년1부	박성원(16)	276	이국희	3	장년1부	한영대(18)	297	윤재원	6	장년2부	권민정(4)
256	최진영	10	장년1부	박성원(16)	277	김나훈	18	장년1부	한영대(18)	298	황선정	6	장년2부	권민정(4)
257	지효현	9	장년1부	박성원(16)	278	김정민	13	장년1부	한영대(18)	299	김태희나	25	외산부	이은정(2)
258	한진희	18	중동3부	김정민(18)	279	황선정	24	장년1부	정희정(24)	300	박복희	3	장년1부	장년1부
259	박복순	4	소남부	문영규(4)	280	박지연	24	대학부	황선정(24)	301	신선준	2	대학부	송진정(2)
260	윤봉애	4	소남부	문영규(4)	281	박지연	11	에바다부	문영규(24)	302	이진하	3	유년부	공예원(9)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전반기 장학생명단

대학원생 (20명)

강은미	김명철	김현희	김지희	김진옥	김진희	김현우	김희영
나소영	류원현	문성옥	박유미	서혜덕	안준모	유재혁	윤지원
장 작	정미선	정옥임	최윤경				

대학생 (112명)

강 건	강문구	강민희	강부희	강지원	고홍섭	곽원구	권도형
권동희	권리순	김다혜	김대희	김도환	김도홍	김동식	김동순
김동현	김민수	김선주	김성혜	김소담	김소라	김영민	김영민
김영훈	김예진	김수집	김유림	김윤경	김윤영	김은진	김재현
김지선	김지현	김지윤	김지혜	김지혜	김종미	김희진	남주성
남지현	백한호	문은희	민미가	박경훈	박미연	박민국	박병훈
박소연	박은지	박창희	박정윤	박정희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손향아	신성철	심명진	심재원	안 윤	안지영	양준섭	임세범
오민정	오민선	오찬양	왕현정	우경은	유미나	유종훈	유지현
윤혜리	이나현	이다정	이동희	이복희	이수이	이은혜	이혜원
이정덕	이정현	이정희	이지연	이지훈	이진향	이태훈	이혜원
임민섭	임유진	장윤호	전숙현	전하라	전혜영	전혜정	장나혜

정성미	정지혜	정혜진	조용민	조진영	조현규	차병철	천애나
천진경	최안나	추수철	한영아	허 람	형윤옥	홍경화	홍승훈

고등학교생 (81명)

강성민	고영규	공예원	공진규	권신영	권예지	김민정	김사부원
김소라	김유용	김정연	김준호	김지수	김지현	김지윤	김지은
김지민	김혜은	김현철	남기훈	문상희	문영광	문정훈	문정훈
민준하	박서정	박연경	박소원	변해원	손현수	신영진	양성훈
양정모	양진미	염예은	오다원	오준호	오유연	원종진	유한중
윤수정	윤영훈	이다영	이성원	이소연	이연성	이영찬	이은혜
이지영	이지혜	이호찬	이현주	이혜원	이호영	임성원	임지수
정예하	정한나	조수빈	조슬기	조진희	조현수	최예진	최은빈
최지원	한상현	한이레	한정훈	한태희	한진희	홍다영	홍진희
황서현							

충헌장학생 선발자 명성록 (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2008년 2월 27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충헌동산

예수님이 주신 용기

나는 전도를 해 본 적이 없었다. 전도를 해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도를 때마다 뒤로 빠지곤 했다. 그러다가 총력 교회주년 전도에 참석하면서 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함께 전도하던 집사님은 나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 집사님을 부러워만 했을 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용기를 달라고! 말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한 뒤로 전도할 용기가 생겨났다. 내 안에 생겨난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은 데서 오는 용기였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의 용기였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 안을 채웠더니 전도지를 내밀 수 있게 되었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전도지를 주러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마주치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지나가 버린다. 처음에는 거절당했다는 무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거절당한 내 마음보다 거절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전도지를 내어 밀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전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전도지를 읽어 보세요."라고 하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전도지를 받아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

이런 나를 보면서 이전의 내 모습을 돌아본다. 모태신앙으로 50년 이상 변화 없이 틀에 박힌 신앙생활만 해왔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 하고 지금도 변해 가는 나를 보게 된다.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이다. 변치 않는 사람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전도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주위 친구들도 내가 변했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너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한 친구는 우리 교회에 오기로 약속했다. 정말 감사드리다.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변화되었음에 놀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전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 아직 전도의 열매는 많이 맺지는 못했지만 전도하는 그 자체가 나는 즐겁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다.

주영선(집사, 4교구)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요즘 나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낀다. 분명 변화가 없었던 곡조와 가사이지만 한 소절, 한 소절이 전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다. 수없이 들었던 찬양이고, 찬양가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불러 왔지만 이제는 그 내용들이 절절하게 내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 찬양의 가사가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는 세상의 거친 물결에 흔들렸던 내가 함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그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깨닫는다. 또한 세상의 것들에 비할 수 없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이기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참기 힘든 고통과 모욕, 부당한 대접 그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견디신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과 죽음에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감히 내가 알 수 있겠는가!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 그에 속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입술로 그저 곡조를 따라 부를 뿐이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믿으니 열렬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게 된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없더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 하려 하소서. 사랑의 구주여 저비 배부소서. 주 보혈로 날 깨끗하게 하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지만 어찌 그것으로 족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니 가까이 흠날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 벅참으로 힘껏 찬양을 부른다. 더욱이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입으로 노래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나도 이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게 됨을 정말로 감사드리다. "주여, 이 죄인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최재홍(집사, 9교구)

2008년 대학부 겨울수련회

선택받은 나그네

이번 대학부 겨울수련회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나에게 주님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셨다. 매시간마다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의 욕심이 이 세상을 살아 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한 산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하면서 학업과 세상의 여러 가지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좌절하던 나에게, 예수님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교만과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산 소망(벧전 1:3)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며칠 후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비록 나그네의 모습처럼 먼 이국 땅으로 가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이 또 다른 환경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욕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체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

백성진(대학부)

말씀을 통한 새로운 출발

이번 수련회는 설렘보다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제 모습과 그로 인한 결함이 컸습니다. 그저 욕심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 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의식으로 포장된 또 다른 나의 욕심이었습니 다. 주님은 이런 저의 욕심 대신에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고, 저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은 흔들리고 정말 두려울 때도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한 수련회였습니 다. 사랑의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채은혜(대학부)



6교구팀

*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심을 알리니 다만 나는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였다. (정원임 집사)

* 예수님 오신 날, 동방박사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몰라 생령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시는 도망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눈물만 흘렸다. (정옥희 집사)

* 주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신 것이니 '선교다니요. 감히 비천하고 우둔한 재가 말이죠!' 이런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뿐이다. (정연자 성도)

*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기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홍지희 집사)

*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공안과 경찰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지를 빼앗기고 포위까지 되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백은숙 집사)

* 우리는 연합하고 부족하였지만 성령님은 우리 대원들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셨고, 뜨거운 영혼 사람과 복음의 열정을 넘나들 부어 주심으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영혼구원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규성 안수집사)

*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십자가의 복음이 열매 맺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김정배 집사)

* 주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라웠다. 가장 낮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더욱 높이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준성 안수집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1일(월)~2월 19일(화)	대학부 6팀	남은희
2월 11일(월)~2월 19일(화)	대학부 7팀	박옥현
2월 11일(월)~2월 20일(수)	대학부 4팀	이정화
2월 12일(화)~2월 19일(화)	대학부 5팀	최양숙
2월 14일(목)~2월 21일(목)	대학부 1팀	유동호
2월 14일(목)~2월 22일(금)	대학부 3팀	최계열
2월 15일(금)~2월 22일(금)	대학부 8팀	김보옥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5일(화)~2월 13일(수)	24교구 3지역	한민교
2월 8일(금)~2월 16일(토)	대학부 2팀	김영숙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최성규 목사

최성규목사님(2003.8.1.~2008.2.7.)이 덕소교회(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지구 소재)의 담임목사로 3월 1일에 부임하십니다. 그동안 최성규목사님은 교구, 교육부서 그리고 최근 외선부까지 만 4년 6개월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는 목사님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로 양성하는 일을 위한 정력헌금, 선교지의 교회 성장을 주신 위임목사님과 연합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덕소교회에서의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를 준비하셨다는 최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아멘.



보혈로 기경된 권사회가 되게 하소서



이경화(권사회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을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 영의 목은가이 기경되어지고 거둔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갈급합니다. 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굳어진 목은 쪽, 즉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화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불신앙, 교만, 우월감, 열등감, 시기, 질투, 비관, 혐연, 명예, 탐욕, 고집 등 오랜 시간 속에 알게 모르게 죄와 상처로 쌓여진 목은 죄 덩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며,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암초와 같은 것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호 10:12)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창 15:1) 말씀을 붙들며 권사회는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1,068명(은퇴권사 387명, 시무권사 681명)의 권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

다.(히 3:1) 권사회는 4지회로 나뉘어져, 섬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서 땀흘리고 있습니다. 총원 기도원과 교회식당 봉사, 병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원과 젊은이들을 전국 일꾼으로 양성하는 일을 위한 정력헌금, 선교지의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헌금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365일 24시간 연속 기도의 제단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권사들의 가장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팀장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권사님들이 각 선교팀의 팀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미약한 우리들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9) 연합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권사회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후히 상 주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일 때마다 기도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거둬들이는 역사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오직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함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헌없이 연합한 권사회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아멘.

